

* 팀NO : 2019- 027

2019 단기선교팀 신청서

선교위원회 확인

1. 국가팀명 : 미얀마 (5팀)

공항 : 만델레이

*항공권구매: (자율, 교회)

서기

지도목사

위원장

2. 사역지 : 만델레이, 미얀마

3. 사역기간 : 2019년7월31일(수) ~ 8월6일(화) / (6)박(7)일

NO	직책	직분	성명(한글/영문)		교구	CMTC	교적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소	E-Mail
1	팀장	권사	박미혜	PAK MI HAE	13	5/19	87-455					
2	총무	권사	석귀수	SEOK GWI SOO	13	3/17	908					
3	서기	권사	정미자	JUNG MEGA	13	3/17	80-366					
4	회계	권사	박숙희	PARK SOOK HEE	13	3/17	82-739					
5	의료	권사	이광주	LEE GWANGJU	13	3/17	89-841					
6		권사	정영희	JUNG YOUNG HEE	13	5/19	2333					
7		안집	김낙홍	KIM NAK HEUIG	13	3/17	84-1348					
8		안집	임채봉	LIM CHERBONG	13	3/17	92-208					
9		장로	김희동	KIM HEE DONG	13	3/17	85-639					
10		권사	김성애	KIM SEONGAE	13	5/19	88-699					
11												
12												

* CMTC선교훈련 및 선교수련회는 출발 5주전까지 필히 수료하여야 출발할 수 있습니다.

* 비자를 받는 팀은 여권과 함께, 비자를 받지 않는 나라는 여권을 COPY(B5 SIZE)하셔서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 사진은 반드시 6개월이내이거나 여권과 다른 사진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E-Mail Address는 팀장, 총무, 서기, 회계만 기록요망.

담당

분과장

5/5
최수안5/5
정재명

미안하 사모여

2019년 7월31 - 8월6일 도착

새삼 느끼고 깨달지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가는 곳마다 찬양이요 가는 곳마다 기도로

머찌 찬양을 만할수 있을까

비록 아약으로 때워한 땅으로

가난에 시달리고 가는 가정마다

차아 눈으로 볼수없는 오지땅

나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고

나 자신이 얼마나 고안했는가

네모습이 그 땅을 밟으면 저절로 고개를

숙이고 불만과 불평으로 편요하면

예수님 이름 부르고 배부르고 편하면

예수님 이름 조차도 잊어 버리고

너무나 너무나 죄스럽고 이만하고

미안하 아이들 가정으로 주님만

오로지 기도와 눈물밖에 없다

우리는 잠시 씨를 뿌리고 오지만

을을 주시고 기뻐 주시는분 예수님 이름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고 자기 자랑이 아닌

고안하지 말고 서로 서로 이해해 하고

사랑하면서 선교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이광주) 드림

2019년 사역 소감문 13교 김낙홍

주님 앞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가고 싶어도 갈수없는 땅 이어전만
나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성령이 저한테 복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세상 풍조를 따를때는 세상것이 제일인줄 알고
돈이 많으면 잘살줄 알고 이리저리 뛰쳐
다녀면 누군가가 교회가자 하면
바쁘다는 핑계 이리저리 피하고 숨고
하나님이 뵈주냐고 떡주노냐고 내 입에서
죄가 죄인줄 모르고 내뱉던 말들
주여 주님이 이렇게 감사하고 또고 말고
미안하고 죄송했다고 늦게 아버지 앞에
나와다고 울면 울면 나의죄가 이렇게
큰죄가 되다것을 목사님 설교 찬송하면
깨닫고 들어도 불려도 왜그리 주님이
감사 한지요 ~~감사~~ 감없이 주시는 하나님
내모습이대로 땅끝까지 복을 전하라고
선교사역주시고 나이는 70이넘어지잔
전장한몸 주시고 비록 약하지만 달란트
주시고 미안아 땅으로 보내주시고
우리 13교구가 교회를 세워시 현지 목사님
께서 너무 마르셨고 너무 가난에 제대로
마실수없는물 한푼이라도 아까워서

미얀마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미얀마 5팀 박숙희 권사

5년전 아버지께서 미얀마 만달레이 피지타곤 지역에 벤엘교회를 세우시고 먼저 택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기를 원하셨던 아버지의 뜻이었었지만 때로는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불평했던 우리의 모습을 먼저 회개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본질은 보지 못하고 눈앞에 현상만 보면서 현지 목사님을 때로 비판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불평할때도 야단치시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언젠가는 너희들이 아버지께서 일하실때를 보리라 생각하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내 때가 되면 벤엘교회와 파우크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심을 보여주시리라 생각하셨나봅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그것을 보게 하셨고 느끼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인 그곳에 파우크 목사님 혼자 하시기에는 힘든 여정의 길이라 생각하셔서 어린 동역자(뮤치)을 붙여주시고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먼저 1대1 성경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분이 신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작년 단기선교 때 박동진 목사님을 통해서 뮤치가 영적으로 민감한 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신 분도 성령님께서 박목사님을 통해서 하신일이라 믿습니다.

아버지의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뮤치가 피지타곤 지역을 변화시키는 한사람이 될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벤엘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실까 생각만해도 마음이 뜨거워 집니다.

벤엘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아래(탄생) 최준호 집사님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최집사님 마음고생 많이 하셨고 애쓰셨습니다.

지금의 열매를 통해서 위로받으시기를 빕니다.

이제 저희들이 해야할 일은 벤엘교회가 복음의 불모지인 피지타곤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위해서, 또 성도들의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서, 찢어지게 가난한 현실에서 농임받을 수 있도록 중보하는 선교팀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없음)

2019-08-11 (일) 14:10

보낸사람 rejoy4578@daum.net<rejoy4578@daum.net>

받는사람 ns3997@naver.com<ns3997@naver.com>

정영희

제목 : 제목: ~~부족한 자를 복음의 도구~~

부족한 자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신 주님, 네번째 미안마 선교를 허락 하심을 감사 드린다, 공항에서 교회로 향하는 이곳의 풍경들이 이제는 낯설지 않고 친근하게 느껴진다. 올 여름 미안마 베엘교회에서의 선교 사역은 그 어느때 보다 은혜의 시간이었다, 교구팀과 청년부가 연합하여 어린이사역팀, 노방 축호 전도팀, 심방팀, 시설 보수팀으로 나누어 사역 하였는데 아침 저녁으로 풍성한 영의 양식으로 먹이시는 목사님(박동진)과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시는 장로님(김희동)이 함께 하시고 복음의 열정을 지닌 청년들과 같이 젊음의 활기와 기쁨으로 사역 하게 하심을 감사 드린다, 매일 아침 경건 회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숙소를 떠나 교회에 도착하여 기도회로 모여 주님께 간구 하였다 파우크 목사님의 사역과 베엘교회에 온전한 예배가 세워지게 하시고, 연합한 성도들의 믿음과 삶을 지켜주시고, 주변 지역의 사람들을 변화 시켜 주셔서 구원 받는 하나님 백성되고, 이땅에 하나님나라의 확장과 오늘의 모든 사역을 위하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 주시기를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고 사역을 시작하였다. 심방 사역에 함께한 현지인 사역자의 통역으로 성도들의 믿음과 형편을 깊이 알게 되었고 그들의 간증을 통해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확인시켜 주셨다. 그동안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땅속에서 생명으로 움트고 자라게 하셔서 어엿이 형제로 드러나 보게 하시고 베엘교회에 제자 삼는 사역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 드린다. ~~확전도~~ 때에도 방문하는 집집마다 친절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기도도 잘 따라 하였다. 특별히 말씀에 관심을 보이면서 집중하는 청년도 있었는데 주께서 그 심령을 만져 주시기를 기도한다. 어린이 사역에 쏟은 땀과 수고, 말씀과 찬양, 무언극과 영상을 통해 이 아이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세워짐을 믿는다. 시설 보수팀에서는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광복 파고 수로관을 돌고 그는 천막을 치고 안.여중 바깥쪽 교제 하고
 나의 LG 스마트폰에서 보낸 교회 대문은 새로 만들어 닦고, 두려네 가운뎃 ^{장만}
 쉬지 않고 광 복하며 기쁨으로 광복하신 집사님들과
 두려네 회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였고
 모든 집원들의 사랑의 수고와 기도로 병행했던 교회 주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호의적으로 열려있고 있는것도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베엘교회나 그곳의 성도들을
 통하여 역사 하시기를 기도 드린다.
 사역을 마치고 교회를 떠나올때 만지 않는 그들과 포옹하고
 손 잡으며 나눈 인사말과. ^{한한} 표정들이 떠올랐다.
 웃음가득
 더키 예수하 라고 쫓바레!
 쫓바 라고 쫓바레! 더키 예수하 요음지바!
 더키 예수하 아멘!

소감문

정미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번 선교를 위하여 이루어진 수고와 인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다. 이 문제를 통한 기도를 하면서 좋은 소식이 들었는데 우리에게 기도로 이끄셨기에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백동진 목사님과 13교구 연구장 김희승 장로님과 13교구 함원과 청원부 팀과 하나가 되어 사역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에 힘이 되셔서 감동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베냐민교회 회원들과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 모임을 하고 사역을 시작하니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주성도들 가정은 심방하면서 그들의 믿음 생활을 볼 때 얼마나 기쁘지요. 성도 가운데 세례 받은 분도 있고 앞으로 자신도 세례를 받고 싶은 전심을 들 수 있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베냐민교회 사역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베냐민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충현 성경통신 강좌

제

교구

목

순

이름:

1. 다음의 성구는 몇 장 몇 절에 있습니까? 대하 25장 - 대하 34장

- 1) 아사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
- 2) 웃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사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
- 3)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
- 4)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
- 5)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
- 6)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
- 7)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
- 8)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앗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
- 9)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 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
- 10)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팔 세라 예루살렘에서 삼십일년 동안 [:]

2. []안에 알맞은 성구의 단어를 채우세요. 대하 35장 - 스 8장

- 1) 또 여호와 앞에 [] 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 2) 바사 왕 []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 3)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
- 4)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 5)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께 번제를 드렸으나
- 6)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 7) 우리 조상들이 []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 8) 이에 []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 9) 에스라가 여호와와 []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 10)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3. 성구가 맞으면 O, 틀리면 X를 []안에 하세요. 스 9장 - 느 1장

- 1)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
- 2)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
- 3)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

단기선교 자체 평가서

사역기간	2019년7월31일 - 8월6일 (6박7일)				
국가별 팀명	국가 명	미얀마		팀명	미얀마5팀
팀원 성명(직책)	성명	정지자	직책	서기	
사역 경험	유() , 무()	다녀온 사역지		미얀마 캄보디아	
언어구사 정도	영어	상, 중, 하	현지어	상, 중, 하	기타 가능언어

팀 사역과 준비 과정에 대하여

팀 사역과 준비에 대하여	매우 흡족함(), 흡족함(0), 적당함(), 부족함 (), 매우 부족함()			
	부족한 점		실수한 점	
	잘 된 점			

선교훈련과 준비에 대하여	팀은 잘 조직 되었나요?	예	아니오(개선점)	
	팀 모임 중 말씀 나누기?	매우흡족함(),흡족함(),적당함(),부족함(),매우 부족함()		
	외국인 전도훈련은?	잘했다		
	찬양과 기도부분?			
	부족했던점?			
	잘된점			
	훈련준비 중 당신의 역할은?	서기		
	다음 사역에도 참여하겠는가?	예		

사역 프로그램과 리더쉽에 대하여	전체 프로그램은?	매우흡족함(0), 흡족함(), 적당함(), 부족함(), 매우 부족함()			
	부족했던 점은?				
	가장 좋았던 점은?	집행력,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사역에 도움이 되었나?	신실하게 아멘으로 화답할때 이루어지더라			
	사역프로그램의 당신의 역할은?				
	팀 리더쉽에대하여는?	매우흡족함(0), 흡족함(), 적당함(), 부족함(), 매우 부족함()			
기도후원과 중보기도에 대하여	다음 사역에서도 기꺼히 참여 하겠는가?				

기도후원과 중보기도에 대하여	1.기도 응답을 받았는가?	예(✓), 아니오()			
	2.기도 응답으로 용기를 얻었는가?	예(✓), 아니오()			
	3.당신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 후원자가 되겠는가?	예(✓), 아니오()			

현지 사역으로 준비한 문화 프로그램에 대하여	1.어린이 사역 프로그램	매우흡족함(✓), 흡족함(), 적당함(), 부족함(), 매우 부족함()			
	2.장소는?	매우흡족함(✓), 흡족함(), 적당함(), 부족함(), 매우 부족함()			
	3.부족한 점은?				
	4.가장도움이 된 점은?	(부족한 점은?)			
	잘 된 점은?	영양교육, 생도들나 기도 모임으로 그들에게 기도의 분을 부쳐 주심을 감사하리 좋았습니디			

선교 소감문

김희동장로(85-639)

일주일간의 미얀마 만달레이 선교를 통해 연합팀의 모든 팀원들과 함께 복음의 역사를 목격하고 은혜롭게 마치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순종하며 만달레이 사역에 힘쓴 모든 주의 종들께 감사드립니다.

벨엘교회가 사역하는 지역은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하고, 가장은 술과 마약의 유혹에 쉽게 빠져 일찍 죽거나, 이혼, 폭력으로 가정이 무너져 여성과 어린 아이들은 아무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상황입니다.

심방한 6 가정 중, 2 가정에서 들은 신앙 고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14살의 뮤치이라는 아이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을 마치고 페트병 수거, 판매와 짬짬이 목수 일을 도와 집안 살림에 보태는 아버지 없는(물에 떠 내려가 익사함) 가정입니다. 성경 중 가장 좋아하는 내용은 노아의 방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로 간다고 합니다. 생명이 예수님께 있다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둘째는 진말라이라는 30세의 네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첫 말이 예수님 믿고 기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을 보내 주시어 자기 식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저희 선교팀이 작년에 전달한 30만원의 구제비인 것입니다. 술과 마약에 빠진 남편의, 예수님 믿음에 대한 핍박을 피하여 아이들과 지인의 집에 잠시 거하는 안타까움 사연에 선교팀이 구제한 30만원으로 1.5평 정도의 무허가 판자집을 마련하고, 주민등록을 하여 3명의 아들이 학교를 다니게 되고, 본인이 공사장의 막일을 통해 끼니 해결할 수 있다고 마치 천국에 있는 것과 같다는 고백을 합니다. 읍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자기에게 고난의 끝이 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너무 빛나고 힘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불교 국가에서 이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고백하게 역사하신 분은 분명 성령님이십니다. 연약한 벨엘교회와 파우크목사님을 도구로 사용하시어 약하고 약한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어찌 저희가 성령의 역사를 거스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언약이 그들에게 늘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그 땅에 주의 복음이 온전히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견고한 베이스캠프를 구축하라

13교구 임 채 봉 은퇴 안수 집사

미얀마인들 그들의 미소는 맑고 정말 순수해 보인다.

전도 할 때도 무덤고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관심을 갖고 열심히 들어 주는 그들이 고맙고 사랑스럽기 까지 하다.

그러나 그들은 거의 불교 신자들이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엡 5:5)

그러므로 우리 선교팀은 더욱 그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이곳에 왔다.

주로 교회당 바닥 장판 깔기, 노후 수도관 연결, 마당 차광막 설치, 선풍기 부착 등 시설 보수 를 하며 나의 임무를 다 한 후 그곳에서 주일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흐뭇하고 피곤함도 사라짐을 느꼈다.

경건의 시간에 박 동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며 사마리아 지역으로 돌아가 우물가의 여인에게 찾아 가신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 그 사랑이 너무 크게 다가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많이 들었던 말씀임에도 미얀마 만달레이 피지타곤 뵤엘교회에서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져 더욱 은혜가 된 것 이었다고 생각 한다.

그동안 13교구가 주력한 열매로 6가정의 신앙 간증을 들었을 때 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졌고 무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한 성도는 성경을 읽으며 욕의 고난을 알았고 그로써 자신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신앙을 결심하였고, 다른 성도는 집이 다른 사람보다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집을 지켜야 하므로 교회에 올 수 없었는데 집 봐 줄 친척이 와서 교회 올 수 있으니 이제부터 성경 공부에 꼭 오겠다고 간증하기도 하였다.

비록 6가정이 시작하지만 뵤엘 교회가 이 지역의 견고한 베이스캠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9 - 7月31 - 8月6日 까지

세상에서 반항하고 어둠의 빛에서
살던 나 세상풍조를 따르고
세상 것을 너무나 사랑했던
어리석고 미련한자 고만하고
불안과 불평으로 온갖 죄를 짓어던 나
주님앞에 무릎꿇고 회개 하고
다시는 뒤 돌아 서지 않게 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찬양하면 손에 잡고
주님이 이마에 가져도 안주셨다면
또 세상속으로 들어 가지지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요
우리 박동진 목사님 설교 말씀이 기억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제가 감히 어찌 선교사로 갈수 없을까
보내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 이만과 땅을 보내 하시고
파우크 목사님을 알게 하시고 모회를 세우시고
이번 선교는? 늦게 하고 깨달아 지만
목사님 우리팀 청년팀 한아름 한뜻 모아
기도하고 찬양하고 훈련서 손을잡고

가는 가정집마다 웃으면서 들어오라고
 의자 주시고 부채도 직접 안들어서
 주시고 흠이 묻은 의자를 눈썹엔 손으로
 씻어 내시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전혀 몰랐던 땅
 아이들 어른들 야박으로 몰고 학교로 가고 심지어
 형편 때문에 못다니고 부모들이 거기 무슬림들이라
 보이게 하셨는지요 우리는 자기자랑으로
 자기가 했다고 고마움을 주신것도 하나님께서
 각자의 달란트 ~~주신~~ 주심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진심으로 선행사역이
 무엇이^{까지} 알게 하셔서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살아가는 기쁨이 땅
 순간순간이 뭉기 말뚝이 생각난다
 가난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괴로우면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 하면서 주님앞에 더더 가까이
 모든것은 주님이 하시고 모든것은 우리의
 아픔과 눈물 보이게 하시고 한영호 한영호 이 얼마나
 소중한지 기도하게 하셔서
 온성도님을 교구식구들 기도해주시고
 잘다녀왔읍니다 감사하고 사랑해요 김성애

김
성
애

선 교 소 감 문

미얀마 북쪽 만달레이에 세운 뵐엘교회는 가는 여정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양곤에서 8~9시간을 버스로 이동을 하던지, 태국을 거쳐 6시간을 기다려
환승을 해야 갈수있는 곳입니다

교회가 위치한 동네는 우리나라 60년대 천계천의 모습이라고나 할까요?

오물과 사람이 공존하는곳!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5년이 지난 지금 이번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가난하여 아이들의 주민증도 없어서 학교도 못보내던 가정에 적은
정성이 전달되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무엇보다 엄마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간증하는 것을 보게하시고 술먹고

행패를 부리며 예수님 믿는다고 집을 나가 버렸던 남편이 주일에 처음으로
교회가 어떤 곳인지 본다고 출석하기도 하였습니다

14살되는 남자 아이는 가난으로 먹지못하여 우리나라 초등학교 1~2학년 밖
에 안되는 체구에 전도팀을 앞장서서 다니며 “더킨 예수꼬 요옹지바”

(예수 믿으세요)를 외치며 미래에 목회자의 모습을 보게하셨습니다

반면에 안타까운 모습도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우상제단을 헐어 버렸다고 했는데 교회에 나오면서도 금년에는
장애자 아들방에 우상 제단을 만들어 놓고 아들을 억지로 절하게 하기도하
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형편이 나은 사람은 도둑이 들까봐 교회에 나오는것
을 주저하는 사람도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 되는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맺혀지기 시작한 복음의 열매들이 가시에 기운이 막히지 아니하고

더욱 견실하고 아름답게 익어가며 성장하도록 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기도로 후원해야 되는 사명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맺돌은 하도 천천히 돌아가서 안돌아 가는것 같지만 여전히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하시고 소망중에 인내해야함을 깨닫게 하
셨습니다 할렐루야!

소감문

2019년 7월31일 - 8월6일까지 (6박7일) 만델레이 피지타곤 지역에 선교를 다녀왔으며 이번이 네번째로 미얀마 선교사역에 참여하게 되어 감사하였습니다.

연합으로 미얀마5팀과 6팀이 함께 하였습니다. 특히 목사님과 장로님께서 계시고 청년부가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풍성한 사역이었습니다. 매일 오전에 실시되는 목사님의 기도회 인도에 벨엘교회 교인 모두가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며 개인 집으로 심방이 이루어져서 그들의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방과 후 어린이들이 모여 준비된 말씀과 찬양, 율동, 만들기 등 청년부팀이 수고해 주셨고, 설비팀은 천막, 선풍기, 바닥, 대문, 호수파이프 교체 등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노방전도/축호전도를 통해 벨엘교회를 알렸습니다. 2015년 처음에 갔을 때는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했지만 5년이 된 지금은 교인이 6가정으로 늘었고 어린이들도 10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는 특별한 아이도 발굴되어 다음세대를 위한 제자훈련에 들어 갈수 있습니다. 이번 사역은 목사님과 함께 함으로 팀원 모두가 더욱 영적으로 무장되며 파우크목사님 사역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며 청년부의 어린이사역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2019년8월10일 박미혜권사